

大圖實測舍利盒製銀

對한 모양이 다리와 다리사이에 同一하게 세 곳에 陰刻되었다. 그 사이 卽 다리 위에 肩部에 걸쳐 三角形의 花卉가 있고 肩部와 口 周圍에도 小 花朵를 羅列하였다.

全體가 鏡面 鍍化되기는 하였으나 器形이 아름다우며 紋樣亦 優麗하다. 果然 皇龍寺址에서 出土된 것인지는 證明할 길이 없으나 器形이나 彫刻手法는 統一을 前後한 新羅作으로 보이며 일찌기 이와같은 舍利盒이 發見된 일이 없느니만큼 매우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公州出土의 陶棺

金 永 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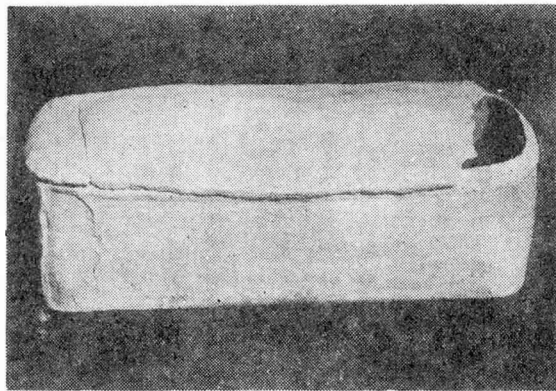
이 陶棺은 一九五七年 四月 公州郡 反浦面 馬岩里에서 花草를 採取한 人夫에 依하여 偶然히 發掘되어 花草園主의 손에 넘어간 것을 筆者의 斡旋으로 公州博物館에 옮겨 陳列한 것이다. 이 陶棺의 形態는 長方形의 네모를 둥글린 것으로서 內外部가 無紋으로 되어 있으며 一端이 넓고

一端이 좁아졌는데 그 遞減된 線이 아주 自然스럽다. 그리고 이 棺은 두께와 밑쪽으로 되어 있는데 밑쪽에 約一·五cm의 口緣을若干 內部로 들어가게 만들어 두께를 덮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棺은 그 土質로 보아 百濟土器中에서도 上代에 屬하는 것이며 이런 模樣의 陶棺은 公州近處에서 처음 發見된 것으로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그런데 이 棺의 크기로 보아 小兒의 棺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小兒를 爲해서 特別히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마 必是 骨棺의 一種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發掘當時 아까울게도 두께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다.

棺의 크기

外部全長 六八·五cm
幅(廣部) 二八·五cm
蓋 殘存部長 六一·五cm

高 一九·五cm
幅(狹部) 二六·五cm



公州郡 反浦面 馬岩里 出土 陶棺